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31주일 · 위령 성월
제33권 49호(다해) 2013.11.3

[묵상]



세관장 자캐오와 예수님

나무에 오르자

푸하하하!!
창피하게도 체면도,
염치도 버리고,
나무 위로 기어오르다니,
나무 위에 올라붙은 세관장의 꼴이라니....
나무에 올라간 자캐오만 키가 작은 것일까?
나는 또 얼마나 작은 사람일까?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걸까?

내게도 나무에 오르려는 열성이 있다면,
그래서 타인의 아픔을 보고,
타인의 상처를 보고,
같이 아파하고,
내 상처를 드러내고,
내 상처에 감긴 봉대를 풀어,
그의 상처에 감아준다면,

나더러 "얼른 내려오너라."하실까?
그 분이 내 집에 머무르실까?

-오- petrus3@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월요일	새벽 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면담의 날(신부님, 수녀님) 레지오 마리아	오후 2:00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그룹반)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4째토요일) 소년 레지오 마리아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3:00 오후 6: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페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제단채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안나회, 양업회, 성모회, 자모회, 대건회 • 꾸리아 3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 • 제대회 4째주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30 오후 1:00 오후 1:45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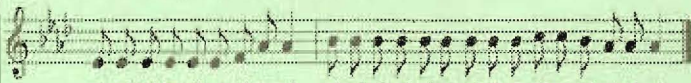
주임신부 : 오창근 페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오향숙 마우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재 : 최영진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의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연)김이기 요셉 & 김순희 헬레나
특전미사	(생)김병조 마틴 & 박지연 요안나
주 일	(연)이명자 로사, 이경용 야고보, 이현호 요한, 전사웅 요한, 유정복, 이용식 베드로, 이중민 베드로 & 차정진 마리아, 주용범 아브라함, 김두철 아브라함, 오진 베드로, 고준희 제임스, 정학순 발바라, 최근석 마리아, 돌아가신 레지오단원들
낮 미사	(생)이윤조 클라라, 이준영 마르코 & 이제이미 크리스티나, 주태석 다두, 이근모 마리오 & 이행자 리드비나, 고정민, 김복희 로사리아 & 김영길 안드레아 가정, 정엘리스 클라라 이효희 마리아 & 신중철 아브라함 가정, 김형순 다니엘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지혜서(Wisdom) 11,22-12,2

화답송 ㉠저의 임금이신 하느님,
영영세세 당신 이름을 찬미하나이다.



저의임금이신하느님 영영세세당신이름을찬미하나이다.

○저의 임금 이신 하느님,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영영세세 당신 이름을 찬미하나이다.
나날이 당신을 찬미하고, 영영세세
당신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하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넘치시네. 주님은 모두에게 좋으시며,
그 자비 모든 조물 위에 내리네.㉠

○주님, 모든 조물이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당신 나라의 영광을 노래하고,
당신의 권능을 이야기하나이다.㉠

○주님은 말씀마다 참되시고, 하시는 일마다
진실하시네. 넘어지는 누구라도 주님은 붙드시고,
꺾인 이는 누구라도 일으켜 세우시네.㉠

제 2독서 테살로니카 2서(2 Thessalonians) 1,11-2,2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네.㉠

복 음 루카(Luke) 19,1-10

영성제송 주님, 저에게 생명의 길 가르치시니,
당신 얼굴 뵈오며 기쁨에 넘치리이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347	230	191
봉헌	264	269	270
성체	Power of Your Love	280	289
파견	188	349	350

올바른 성모신심

제2장 성모 마리아에 관한 교의

3)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

“영원으로부터 하느님 말씀의 강생과 함께 천주의 성모로...예
정되었던 복되신 동정녀께서는 하느님 섭리의 계획에 따라 이
세상에서 하느님이신 구세주의 거룩하신 어머니이시고 그 누
구보다 각별히 현신적인 동반자이셨으며, 또 주님의 겸손한 종
이셨다. 그리스도를 잉태하시고 낳으시고 기르시고 성전에서
하느님 아버지께 봉헌하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당신 아
드님과 함께 수난하시고, 순종과 믿음과 바램과 불타는 사랑으
로 영혼들의 초자연적 생명을 회복시키시고 온전히 독특한 방
법으로 구세주의 활동에 협력하셨다.”

무엇보다도 그분의 모성은 주님 탄생의 예고에 대한 믿음의 동
의에서부터 영원한 완성에 이르기까지 지속되며, 하늘에 올림
을 받으신 지금도 이 구원의 임무를 그치지않고 계속하시어 당
신의 전구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얻어 주신다. “그
때문에 복되신 동정녀께서는 교회 안에서 변호자, 원조자, 협조
자, 중개자라는 칭호로 불리신다.” 여기서 ‘공동 구속자’ 라는
표현은 인류 구원의 협조자라는 표현을 잘못 번역하거나 강조
한 것에 불과하다.

곧 그리스도의 구원 사업에 중요한 협력자로 찬양한 것이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
어지기를 바랍니다.”(루카 1,38)라는 하느님에 대한 철저한 순
명과 신앙은 마리아의 탁월한 성덕을 인식하는 출발점이 되었
다. 오리게네스(Origenes)교부는 제자들이 모두 도망친 것에
비해 십자가 곁에 남아 계셨던 마리아에게서 용기를 보았으며,
마리아의 노래(성모의 노래)에서 드러난 겸손, 가난, 신앙의 충
만함, 영적 인식, 하느님의 신비적 계시를 현명하게 받아들이는
자세등의 덕을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시메온의 예언과 엘리사벳 방문을 통하여 신앙의 어둠을
이겨 내고 정상을 향한 신앙의 여정을 인식하였다.

중세의 신학자들은 마리아께서 그 성덕으로 말미암아 무죄하
게 일생을 사셨지만 원죄 없이 잉태되었다는 것은 받아들이지
못하였다. 마리아의 원죄 없는 잉태를 주장한다면 예수 그리스
도를 통해서만 구원된다는 구원론에 저촉되기 때문이었다.

그런 이유로 중세기에 이르기까지 안셀모(Anselmus), 베르나
르도(Bernardus), 대(大)알베르토(Albertus Magnus), 토마스
데 아퀴노(Thomas de Aquino), 보나벤투라(Bonaventura)
조차도 마리아의 무죄함과 완벽한 성덕을 인정하면서도 원죄
의 면제를 수용하지 못하였다.

둔스 스코투스(Duns Scotus)는 이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
라보았다. 그는 마리아의 원죄의 면제가 그리스도의 구원의 보
편적 중개 능력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돋보이게
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분명 마리아의 무죄성은 하느님의 은
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계속>

참된 행복의 길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을 갈망하는 우리들에게 세상의 여러 종교와 많은 단체는 경쟁적으로 행복의 길을 제시합니다. 어느 길을 택해야 할까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을 주님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참된 행복, 곧 영원한 생명이란, “홀로 참 하느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요한 17,3) 성부와 성자를 올바로 알게 되면 진정으로 행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을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알면 우리는 참된 행복과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일상의 삶에서도 누군가 나를 극진히 사랑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 자체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피조물의 사랑도 그런 힘과 위로가 된다면 창조주의 사랑은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될까요?

오늘 제1독서의 말씀처럼 하느님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사랑하시며, 당신께서 만드신 것을 하나도 혐오하지 않으십니다.” 탈신하는 자들도 내치지 않으시고 꾸짖고 훈계하시어 “그들이 악에서 벗어나 당신을 믿게 하십니다.” 이런 하느님의 큰 사랑을 생생하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예리코의 세관장 자캐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 당시에 세리는 이스라엘을 무력으로 지배하고 있던 로마 사람들을 대신해서 세금을 징수했는데,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이 거두기 일쑤였습니다. 그들은 과거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때의 친일파와 앞잡이와 같은 사람들로서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또한 직업상 이방인인 로마인들과 자주 접촉해야 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되어 회당 예배에도 참석할 수 없었고, 경건한 이들은 그들과 어떤 접촉도 피했습니다.

예수님은 혐오와 기피의 대상이었던 세리 자캐오의 집에 자청해서 머무십니다. 죄인이 자기 죄 때문에 죽기 보다는 회개하여 살기를 원하시는 하느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파격적 행보는 봄바람이 얼음을 녹이듯 굳어져 있던 자캐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십니다. 그는 감격한 나머지 선뜻 자기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느님의 자비를 체험한 자캐오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제2독서) 변화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당신이 지으신 모든 생명을 사랑하시는 분, 죄인마저도 사랑으로 감싸 주시는 분임을 보여 주십니다. 설사 우리가 하느님께 등을 돌려도 그분은 사랑의 눈길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결코 변치 않는 하느님 사랑의 눈길을 마음에 새기고 산다면, 역경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고 어려움 중에서도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사랑 자체가신 하느님께 깊이 뿌리를 두고 진정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 사람들을 통해 교회가 새롭게 되고 세상이 밝아질 것입니다.

◆손희송 베네딕토 신부 / 서울대교구 사목국장

나만의 속도

해마다 다르긴 하지만 봄꽃이 복상하는 속도, 하루평균 22km. 단풍이 남하하는 속도, 하루평균 24km. 벚꽃이 지는 속도, 초속 5cm. 사람의 평균 걷는 속도, 시속 3km. 눈이 내리는 속도, 초속 15cm. 달팽이가 걷는 속도, 1초에 1cm. 내 추억의 속도, 그리움 만큼.

그렇다면 마음의 속도는? ◆이영 아녜스/수필가

이번주 전례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보나 보나	정광미 프란치스카	남성철 베네딕토
제1독서자	박민환 미카엘	이민상 요한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이은지 수산나	이순자 비비안나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남 3반

다음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김아영 아가다	신덕례 테레사	정미영 미카엘라
제1독서자	이범주 다니엘	박진수 스테파노	모은기 다두
제2독서자	유보나 보나	박혜경 레나타	정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P.V. 3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 오늘 주일(3일, 매달 첫째 주일)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자선 2차헌금이 있습니다.

11월 위령 성월

위령성월에 죽은 이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교회 학자인 성 압브로시오 주교님께서도 "눈물을 줄이고 기도에 힘쓰십시오. 운다는 것은 잘못은 아니지만 당신을 떠난 영혼을 위해 기도해주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성시간 : 7일(목) 저녁미사와 함께

◆ 남가주 한인가톨릭 위령의 날 합동 연도 및 미사

- 일시 : 9일(토) 오후 1시15분(연도), 오후 2시(미사)
- 장소 : 홀리크로스 묘지
- 본당출발 : 카폴, 낮 12시40분 성당 파킹장
- 문의 : 김정웅 요한 연령회장 ☎(310)720-8240

◆ 평신도주일 : 17일(주일)

◆ 그리스도왕 대축일 : 24일(주일)

◆ 건강에 좋은 유기농 핫건조 대추 판매

- 일시 : 오늘주일(특전미사포함)미사후
- 생산지 : 필렌 대추농장
- 가격 : 3.5파운드 \$20
- 목적 : 사목회와 자모회 기금 마련

◆ 사회복지분과 '뇌혈류검사'(중풍검사) 및 독감예방주사 접종

- 일시 : 11월10일(주일) 오후 1시~3시 강당
- 뇌혈류검사 대상 : 50세 이상 남녀교우
- 뇌로 올라가는 정맥의 혈류량을 초음파검사하여 중풍가능성 여부를 조기진단합니다.
- 독감예방주사 대상 : 18세이상, 노약자 (계란 알러지 없는 분)
- 후원 : 프로스펙트 메디컬/수호천사보협
- 문의 : 이정훈 안셀모 사회복지분과장 ☎(310)908-8823

◆ 11월부터 본당 평일미사가 월, 화요일에 신설됨으로써 매일 봉헌됩니다.(*미사스케줄 시간표는 주보 1면 참조)

- 월요일 새벽미사 : 오전 6시30분
- 화요일 저녁미사 : 오후 7시30분
- 수,목,금 미사는 종전과 같습니다.

◆ 성모회 11월모임

- 일시 : 11월10일(주일) 오후 1시 천교장
- 문의 : 권순길 체칠리아 성모회장 ☎(310)365-2183

◆ 제32회 남가주 한인가톨릭 추수감사절 합동 야외미사

- "저는 주님의 자애를 영원토록 노래하오리다." - 시편 89: 2-
- 일시 : 11월28일(목) 오전 10시30분 연합미사
- 미사집전 : LA대교구 알렉산더 살라차르 주교님
- 2부행사 : 오후 1시, 각성당별 경합 '전국 노래자랑'
- 장소 : El Dorado E. Regional Park(통비치)
- 주최 : 남가주 한인사목 사제협의회/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주관 : 백삼위 한인성당
- * 이날 본당 평일미사(목 7:30pm) 없습니다.
- * 행사당일 오전 9시45분까지 입장하시면 공원주차를 무료로 할 수 있고 모자도 드립니다.

◆ 추수감사절미사 합동 성가연습에 적극 참여합니다.

- 일시 : 11월 24일 주일 오후 1시 본당 성전,
- 마지막 리허설(11월28일 당일 오전 8시 엘도라도파크 현장)
- * 문의 : 민원희 안나 본당 지휘자 ☎(310)634-9631

◆ 백삼위 서예 동호회원 초대합니다.

- 일시 : 매월 2째, 4째주일, 오후1시30분
- 대상 : 한문, 한글 서예와 사군자를 배우고 싶은 새회원
- 회비 : 월 \$20 * 문의 : 이명렬 라파엘 ☎(310)749-0278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11월3일(주일) : 자모회 바자회 음식(다양한 핫도그 \$3)
*주일학교(자모회 핫도그 & 핫초코 또는 주스)
- 11월10일(주일) : 하버/카슨(손수제비 \$3)
* 주일학교(베테른스테이 연휴 수업 없음)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운철	강인모	강태홍	고천용	구자은	금동균	성전헌금	강운철	강인모	강태홍	고천용	구자은	금동균
	김영길	김우용	김 욱	박완철	박종열	박주현		김영길	김우용	김 욱	박완철	박주현	반비오
	반비오	변해경	서성용	오일순	윤석구	윤선희		변해경	서성용	윤선희	이경태	이귀란	이병우
	이경태	이귀란	이병우	이복임	이상철	이석진		이복임	이상철	이석진	이우성	이일랑	이형삼
	이우성	이일랑	이형삼	조준제	조혜정	주이자		조준제	조혜정	최진수	최태훈	황인종	
	최진수	최태훈	최희숙	황인종									
	합계 : \$3,750							합계 : \$3,620					
주일미사 헌금 : \$2,890							감사헌금 : 안 용 이인석						

공지사항

주일학교 소식

◆ 자모회 기금모금 바자회에 초대합니다.

- 일시 : 오늘 주일(3일) 주일미사후(아침, 학생, 낮미사)
- 장소 : 부엌 옆 부스와 친교장
- 품목 : 음식판매(4종류 핫도그 & 도넛과 커피), 어린이용품
- 목적 : 백삼위 어린이를 지원을 위한 기금 마련
◎ "교우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문의 : 한길선례 스프라스터카 자모회장 ☎(310)782-1025

◆ 위령성월 맞아 현장실습, 고등부 묘지 방문

- 일시 : 오늘 주일(3일) 학생미사후 오전 10시30분~오후1시
- 장소 : 홀리크로스 묘지(컬버시티)
- 학부모님들의 차편봉사 부탁드립니다.
- 문의 : 김낙기 바오로 고등부 주임 ☎(310)709-3343

◆ 중등부 Lock-In

- 일시 : 11월8일(금) 오후 6시~9일(토) 낮 12시 본당
- 문의 : 스텔라 남 중등부 주임 ☎(310)918-3324

◆ 펀드레이징 행사

- 일시 : 11월10일(주일) 낮미사후 친교장
- 행사내용 : 맛있는 쿠키, 커피, 티 등 디저트 판매
- 목적 : 중고등부 행사용 티셔츠 제작비 지원
- 티켓 : 1장에 \$10(오늘주일27일부터 팝니다.)
- 문의 : 박윤희 스테파니아 행사담당 ☎(310)613-9116

◆ 본당 소년 레지오마리에 단원(그리스도의 어머니pr.) 모집

자녀들이 레지오 활동을 통해 본인의 성화를 이루며 가정과 공동체를 위해 신앙활동을 하면서 성장하도록 권합니다.

- 대상 : 주일학교등록학생으로 7학년 이상
- 주회 :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성당 2층교실
- 문의 : 김낙기 바오로 단장 ☎(310)709-3343
소운선 요세피나 부단장 ☎(310)630-7373

남가주 소식

◆ 성 아그네스 성당 제18기 커피교육 안내

- 일시 : 11월11일(월), 14일(목) LA 성 아그네스 성당
- 지도 : 최대제 로베르토 신부
- 수강료 : \$200(첫강의 후 10회 실습)
- 문의 : 성당 사무실 ☎(323)731-4433

◆ 남가주성령채신봉사회 '성령체험 수기' 공모합니다.

- 내용 : 남가주성령채신대회 참가후의 성령체험 수기
- 규격 : Letter 용지 5매내외(글자크기 10포인트)
- 마감 : 2014년 3월31일
(당선작발표 : 2014년 4월)
- 시상 : \$500(성부상), \$300(성자상), \$200(성령상)
- 접수 및 문의 : 강혜원 아네스 기도회장 ☎(310)780-0369

노공동체 11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김명재 아가다 (310)866-8778		차 장 이희경 크리스티나 박은혜 클라우디아	
차 장 김희연 루시아 정병옥 율리아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1	이순자 비비안나 213-675-0498	지경수 태대오 972-1469 11/9(토) 오후 6시
	2	김찬구 요한 701-6343	김정웅 요한 720-8240 11/16(토) 오후 6시
	3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11/8(금) 오후 8시 성당
539-3377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1	강인모테오도시오 780-3258	김주량 요한 782-8549 11/9(토) 오후 5시
	2	심옥방 미카엘라 999-5808	정남형 알베르토 347-9487 11/9(토) 오후 6시
	3	정광미 프란체스카 617-1132	정광미 프란체스카 617-1132 11/28(목) 추수감사절행사참여
200-0512 토런스 남 최옥희 데레사	1	박문주 엘리사벳 968-8280	현석주 아오스딩 560-4968 11/15(금) 오후 7시30분
	2	최순옥 스텔라 951-4710	최순옥 스텔라 951-4710
	3	조정선 마리아 945-8204	조정선 마리아 945-8204 11/28(목) 추수감사절행사참여
508-2912 토런스 북 조화숙 안젤라 213 272-8393	1	정병옥 율리아 404-1607	정병옥 율리아 404-1607 11/18(월) 오후 7시 성당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윤희동 안토니오 365-7871	1/2	조소영 수산나 804-7645	김윤진 카타리나 997-5545 11/8(금) 오후 8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남경희 베네딕다 384-3289	1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송종두 요한 544-1267 11/8(금) 오후 7시
	2	김유미 크리스티아 482-9108	배재일 미카엘 482-9108 11/8(금) 오후 7시
	3	정종미 클라라 818-1799	이영석 크리스토퍼 796-6763 11/8(금) 오후 7시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한애경 율리아나 617-3568 11/12(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구역장 / 반장 모임	오후 1시
-------------	-------

다음주 단체모임

제단체 모임의 날	
-----------	--

위령 성월에 떠오르는 단상

11월은 돌아가신 영령들을 기억하는 위령의 달입니다. 위령성월은 또한 우리 자신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는 좋은 시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내게는 먼 훗날의 일로만 생각되고 평소에는 이를 잊고 살다가 위령성월이 되면 불현듯 생각하게 됩니다.

20년 전인 1993년 6월 평화방송의 '우리 함께 성가를'이라는 프로그램에 우리 본당 성가대가 출연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불렀던 성가 중에 '주여 이 영혼을 받으소서'라는 곡이 있었습니다. 동생인 이분매 수녀님이 작사를 하고 오빠인 이종철 신부님이 작곡한 곡으로 장례미사에서 고별식에 부르는 성가입니다.

이 곡을 녹음하면서 사회자가 성가대원들에게 곡에 대한 생각을 물었는데, 단원 한 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컷전에 남아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장례미사 때 돌아가신 분을 위해 정성껏 이 노래를 부르곤 하는데, 언젠가는 돌아가신 분의 저 자리가 바로 내 자리가 되고 나를 위해서 성가대가 이 노래를 불러줄 것을 생각하면, 이것이 나를 위한 노래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직 젊었던 저는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가슴으로는 그렇게 절실하게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그분의 나이가 되고 보니 새삼 그 말씀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이렇듯 죽음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이지만 우리는 이를 남의 일로 여기고, 마치 영원히 살 것 같은 착각 속에 분주하게 살고 있습니다.

죽음은 가까이하고 싶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를 밝고 아름답게 그린 이가 있습니다. 귀천으로 유명한 천상병 시인입니다. 천시인은 이 세상살이를 소풍이라 말하면서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을 마치고 하늘로 돌아가겠노라고 노래했습니다.

"...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생전에 이른바 부귀영화를 누리기는커녕 모진 시련과 가난을 벗 삼아 남들이 보기에는 힘겨운 삶을 살면서도 "이 세상이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는 시인의 달관의 경지는 신앙인인 우리들이 깊이 음미해 보아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천 시인은 훗날 "천주교 신자로서 신앙심을 이 시에서 표현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시인이 천주교 신자라는 사실은 별로 알려져 있지 않지만, 시몬이라는 세례명을 가졌던 그의 신심은 무척 깊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세상 떠나는 날, 천시인처럼 "참으로 아름다웠더라"고 하고, 또 내년 4월 성인품에 오르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처럼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묵상해 봅시다.

◆김태식 토마스 / 가톨릭언론인협의회 회장

갑작스런 죽음앞에 모든 것이 혼란...

아는 분의 갑작스런 죽음앞에 모든 것이 혼란스럽습니다. 산다는 것이 이렇게 허망한 것인지 새삼 느낍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 태초의 인간이며 인류를 의미하는 히브리말 '아담'은 흙, 땅을 뜻하는 '아다마'에 그 뿌리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인간은 처음부터 흙을 그 뿌리로 하는 존재라는 사실과, 인간에게 숨을 불어넣어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원천이 그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진리를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세상 만물은 하느님께서 '무(無)로부터' 창조하셨다고 교회는 가르칩니다. 놀라운 하느님의 사랑을 말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가르침 속에는 무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무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사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인간은,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말을 빌리면 "늘 무화(無化)의 위협에 직면해"있는 존재입니다. 교회는 이 무화를 새로운 삶으로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가르칩니다. 장례미사 감사송이 그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믿는 이들에게는 죽음이 죽음이 아니요 새로운 삶으로 옮겨감이니 세상에서 것들이던 이 집이 허물어지면 하늘에 영원한 거처가 마련되나이다.'

결국은 선택입니다. 무화의 위협을 외면하면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삶으로 옮겨간다는 가르침을 따르느냐, 그건 스스로 내려야 하는 가장 중요한 선택이요 결단입니다. 그 선택에 따라 삶도 죽음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홍경완 신부 /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장

"천주교 신자가 점(占)보러 가도 되나?"

☞ 천주교 신자가 자녀의 입학이나 성공을 위해 점을 보러 가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성경은 시련과 도전 앞에서 우리가 택해야 할 길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 길은 우리보다 앞서 걸어간 신앙인의 발자취를 따르며 그들의 믿음을 본받는 것입니다. 불건전한 호기심을 완전히 버리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은 생명에 대한 위협마저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세계역사상 유례없이 선조들의 순교를 바탕으로 그리스도교가 전해진 축복의 땅입니다. 생명으로 지켜온 순교자들의 믿음은 우리가 전해줘야 할 진수입니다. 하느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자녀들의 행복과 풍요로운 미래가 그분의 약속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신앙의 시험에서 유혹을 물리치는 삶의 정답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의 믿음에 흠집을 낼 수 있는 "모든 점(占)을 물리쳐야 합니다." (가톨릭교회교리서 2116항)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를 넘보며 하느님 이외의 다른 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하느님의 계명을 어기는 우상숭배입니다. 과거에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느님께서도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자료 : 서울대교구 사목국 연구실가톨릭교회교리서 해설